

서울YWCA

2021 9/10
vol.614

[2021 서울YWCA 중점운동]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 교육과 의식 확산
사회문화교류 확대





마루 개관 기념 인디밴드 네이키드 공연

2000. 7. 15

청소년 문화공간 '마루' 개관

2000년 7월 15일,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현하고 발산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 '마루'가 문을 연다. 개관 공연으로 인디밴드 네이키드와 청소년 그룹사운드 공연, 응원 동아리 시범, 랩 공연이 이어져 청소년들의 환호를 받는다. 개관 이래 마루는 청소년 문화 활동과 공연장으로 활용되어왔으나 노후된 시설과 장비, 코로나 여파 등으로 2020년부터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최근 미국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후원으로 청소년의 소통과 성장, 사회참여, 삶과 회복을 돕는 공간으로서 마루는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8-9면 참조)



마루 개관식 테이프 커팅



코스프레 카페에서 만화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청소년들(2001. 1. 11)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9월
공동기도

하나님, 우둔함의 미로에서 방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헤아려지는 나날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분노, 혐오와 독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기쁨과 경탄과 존중이 자리잡게 해주십시오. 아멘

10월
공동기도

하나님, '넓이와 높이보다 깊이를 달라' 청했던 어느 시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남에게 뒤질세라 정신없이 달리다가 보니 생이 공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믿는다 자부하면서도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꽃 진 자리에 맺혔던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 이 계절, 우리의 믿음도 향기를 머금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울 YWCA

vol.614
2021년 9·10월호

- | | | | |
|----|---|----|--|
| 2 | 숫자로 보는 서울Y | 16 | 예술과 여성
미국 최초 여성 인상주의 화가
메리 카사트 |
| 4 | 나를 살리는 말씀
기도부터, 기도뿐!
선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꿈꾸며 | 18 | 소비자 상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자 |
| 6 | Y 이슈
가사근로자법과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 20 | 서울Y 소식
7·8월 뉴스
9·10월 행사안내
9·10월 캘린더 |
| 8 | 특집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 후원
김진덕 정경식 재단 | 26 | 회원증모 명단 |
| 10 | 현장 속으로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이론편 | 30 | 서울Y 도너월 명단 |
| 12 | 환경과 여성
기후변화와 동물들의 지혜 | 32 | 알림터 |
| 14 | 기독교신앙과 여성
성경 속 성폭력 | 34 | 후원 소식 |
| | | 36 | 하나님의 정원 |

〈서울YWCA〉 2021년 9·10월호 통권 제614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기도부터, 기도뿐!”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독립법인으로 창립하는 지역Y에 연합회 회장으로 축하의 글을 보내며 드는 생각은 언제나 같다. 새 옷을 입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을 나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니 모두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YWCA는 평생을 기도하게 이끄는 특별한 곳이다.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던 고1 때, Y-틴 친구를 따라 1970년대 청년문화와 포크송의 무대이던 ‘청개구리의집’, 바로 서울Y 묘우당을 드나들었다. 10대 시절에는 Y가 완전 순수한 놀이터였다. 그러다 대학Y를 거쳐 국제협력부 간사로 채용되어 서울Y 마당을 밟으며 출퇴근하던 때부터 맡겨진 소임을 해내려면 ‘기도가 우선!’이라는 말을 거의 매일 들었다. 당시 총무이시던 김형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 활동가들의 영적 권고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아침 통성으로 기도하는 직원 기도회에 참석하며 ‘오, 기도해야겠네!’하는 인식이 저절로 생겼다.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찾아간 곳도, 서울YWCA!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성옥 총무가 국제협력부 위원으로 섬기라 하여 가이드포스트 편집장을 하며 아이 셋을 키우던 때였지만 기도하며 순종했다.

10년 후인 2000년, 연합회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20년 후, 회장으로 섬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때나 또 그 이후 세계Y 이사로 섬길 때나 지금이나 셀 수도 없이 많이 맡겨지는 YWCA 사역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부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2020년 연합회 회장 선거를 바로 앞두고 찾은 곳도 서울Y 기도실이다. 지하 3층에 위치한 기도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얼마나 올랐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Y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독대해 기도할 공간이 있음에 감격해서였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던 “기도부터, 기도뿐!”이란 말씀을 해 주신 선배님들이 정말 감사하다. 이제는 연합회 8층 새 기도실에서, 교회 새벽기도회에서, 전국 YWCA회장·사무총장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아침이 있어 매일이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은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영적 자세가 갖추어지려면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따라야 한다. 여성운동의 척박한 모래사막 같은 광야에 쏟아부은 선배님들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사막에 길을 내며 옥토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역사도 감동으로 체험했다. 이제 우리가 후배에게 말할 차례다.

“기도부터, 기도뿐!”이라고. Y

‘선’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꿈꾸며



김태연
싱크머니(경제교육동아리)
연세대 신학과 2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28)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가, 지금은 종교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끔찍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존 레논의 노래 ‘이미진(IMAGINE)’에서는 종교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가사가 나온다. 그만큼 현재는 종교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경계를 나누고, 서로 분리하고 차별을 한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간 배타적 태도에 대한 갈등과 마찰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타 종교에 대한 차별도 발생한다. 이슬람교나 힌두교인들에게 한국식 문화를 강요하며 종교 차별을 하기도 하고, 허잡을 쓰는 그들의 문화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기독교인은 본인의 종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내부에서 종교적 차별과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타 종교를 배척하는 행위와, 이단이 나오는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기독교

인이 이슬람교나 힌두교, 불교, 천주교와 같은 타 종교를 배척하며 그들의 사상을 무시하고 사이비적으로 취급하는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 ‘유일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다른 신을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 대신, ‘다양한 종교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종교전쟁과 우리 삶 속 다양한 종교문제는 ‘종교’와 ‘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인의 이기심과 지나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결국 종교전쟁 역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종교라는 명목 하에 벌인 일이며, 사이비와 이단을 만드는 교주 역시 개인이 이득을 보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 종교를 차별하는 이유 역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인 나를 타 종교인보다 더 좋아하실 거야.’라는 이기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종교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종교문제로 인한 희생자나 억울한 피해자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이기심을 줄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 역시 지금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부디 사람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하기보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Y

가사근로자법과 변화하는 돌봄노동시장



표대중
서울Y 자문위원
노무법인 김(경남) 대표노무사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공포했고, 1년 후인 2022년 6월 16일, 제11차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에 첫 시행 된다.

가사근로자법의 가장 큰 의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법의 적용제외로 공식 노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가사근로자들의 노동권이 68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에서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한정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가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속적으로 가사근로자법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이 되었다.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가사근로자법의 입법은 서울Y에는 더욱 뜻깊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66년 서울Y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간

제 가정부 훈련을 실시하며 식모로 불리던 여성들을 출퇴근이 가능한 직업인으로 성장시켰는데, 이후 수십 년간 비공식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돌봄노동이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공식노동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경제를 꾸려왔음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 일하다 다쳐도 공식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퇴직급여 등의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없었다. YWCA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을 촉구해 왔다.

향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급여,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특별히 호출형 근로 성격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최소한의 고용보장이 어려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가사근로자법에서는 ‘최저근로시간’을 명시했고,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가 감소해도 가사근로자는 최저 근로시간만큼의 소득이 보장된다.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개선 전망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돌봄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돌봄시장은 2개의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업소개(알선)을 통해 서비스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방식과 바우처서비스(정부의 재정으로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서비스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알선) 방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서비스이용자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비공식 가사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가사근로자의 신원보증이나 업무수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서비스이용자는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서비스 품질개선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이 확대되어 서비스품질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우선

가사근로자,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가 기대하는 가사근로자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 면제, 서비스이용자 소득공제 등)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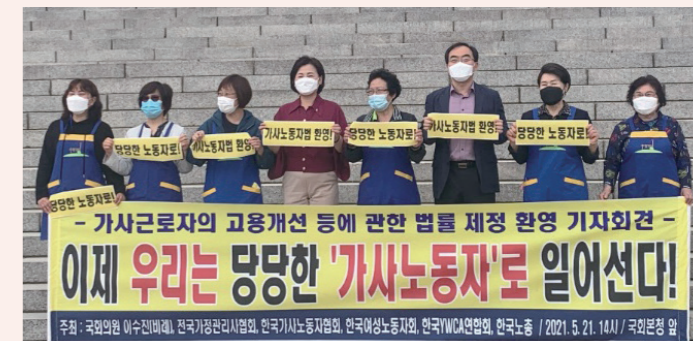
다만, 오프라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서울Y로서는 중대한 도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기존 오프라인 기관이 중개해주는 방식과 달리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Y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취약계층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편리성 및 품질신뢰도를 높이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법 제정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서울Y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더 저렴하면서도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Y 가사돌봄사업이 가사근로자법의 제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YWCA의 돌봄정의운동의 핵심은 가사근로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장의 토대를 만들었으니, 향후 서울Y는 가사돌봄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Y



YWCA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010년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 후원

김진덕 정경식 재단
jkkimfoundation.org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서울Y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을 위해 1억8천만원을 쾌척했다. 마루는 지난 2000년 개관되어 청소년 문화 활동과 공연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노후된 시설과 장비, 코로나 여파 등으로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후원으로, 마루는 청소년의 소통과 성장, 사회참여,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7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후원협약식을 통해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 김순옥 재무이사장, 김순란 이사장을 만났다.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김순옥 재무이사장, 김한일 대표, 김순란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Q 김진덕 정경식 재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김한일 대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김진덕 정경식 재단 (Jin Duck & Kyung Sik Kim Foundation)은 고 김진덕 전 미주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과 부인 고 정경식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고인의 자녀 5남매가 한인사회를 돕고 한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생전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한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후원하셨지요. 이러한 선친의 뜻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구글은 일본의 로비와 압력을 받아 지도에 독도를 리앙쿠르트 돌섬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발

청소년공간 마루 새롭게 탄생합니다



한국 땅 독도 알리기 운동

견한 우리는 백악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한 달 동안 2만5천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구글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펼쳐 10만 명이 참여해 구글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위안부 기림비 사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의 만장일치를 받아 세계 최초로 2017년 샌프란시스코 중심 세인트 메리 스퀘어에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됐습니다. 2019년 8월 14일에는 서울의 중심 남산에도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 인권의 소중함과 함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이밖에 미래 주역을 위한 장학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며 향후 10년 안에는 미국 내 대학에 김진덕 정경식 재단 빌딩을 기부하여 역사관을 운영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알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마루 후원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 김순옥 재무이사장 대학 동창인 김영자 위원(서울Y 청소년위원회)으로부터 마루 후원 요청을 받고 서울YWCA가 펼쳐 온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을 훌륭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단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음껏 배우고 경험하며 문화 교류와 나눔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작은 후원이지만 서울Y를 통해 마루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Q 서울Y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순란 이사장 마루를 통해, 서울Y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또래와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YWCA가 추구하는 사랑, 나눔, 평화통일, 성평등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다면 마루는 훌륭한 교류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년이면 맞이할 서울YWCA 창립 100주년에 발맞춰 청소년공간 마루 새 단장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김진덕 정경식 재단도 계속해서 평화브릿지의 역할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이론편 연애와 다른 결혼, 행복하려면?

서울Y는 7월 3일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이론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09년부터 서울Y와 유한김벌리가 함께 열고 있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에는 지난 12년간 3,398명의 신혼부부가 다녀갔다. 올해 이론편에는 신혼·예비 부부 153커플이 참여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부부심리상담 전문가 최성애 박사를 멘토로 건강한 소통과 평등한 부부의 의미를 나눴다.

32기 부부소통학

뇌과학으로 부부소통을 성찰하다

정재승
뇌과학자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지금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와, 결혼한 지 15년 된 사람의 뇌의 모습은 참으로 달랐다. 그리고 결혼의 연차에 따른 호르몬의 분비량도 차이를 보였다. 부부의 사랑이 연애 때와 같이 지속될 수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그래서! 부부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부부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서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무엇보다 정재승 멘토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력감 없이 성숙하게 배워나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며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유은경 박웅진



정재승 교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인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아! 지금 당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는데 마음처럼 안되는군요~'하는 마음으로 연민을 가져보라고 조언해주셨다. 강연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반성도 많이 했다. "늘 서로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고 존중하자" 서로 약속했다. 비록 랜선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교육이었지만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

33기 부부갈등관리

갈등에 대처하는 우리 부부의 자세

최성애
부부심리상담 전문가
HD행복연구소 소장



갓 결혼한 부부에게도 깨가 쏟아지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가 부부들이 직접 제출한 사전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누면서 현실 부부의 다양한 갈등 상황이 리얼하게 드러났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배우자의 행동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원인이 된 그 문제 자체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빠지고 있다는 징조임을 인지하고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최성애 멘토는 강조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난 후, 자기 전... 각각 몇 초씩만 투자하여 서로에게 다정한 말이나 스킨십을 하기만 해도 부부관계는 훨씬 좋아지고, 갈등이 발생할 확률도 적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트레이드 마크인 커플 티셔츠를 입고 핑크빛으로 화면을 물들인 153커플의 이론편 참가 부부! 배움을 통해(Learn), 평등하게(Equal), 소통을 실천하며(Practice), 서로를 인정하는(Accept) 레파(LEPA) 부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는 9월 11일(토)에 개최 예정인 실천편은 메타버스 가상 레파숲 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총 100쌍의 레파부부를 초대해 부부소통 강연, 숲속 작은 음악회, 다양한 체험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자세한 안내는 23면 참조)

양지우 서정진



결혼 준비를 하며 예비부부 교육을 들었는데 오늘은 부부가 된 지 1주년! 그 기념으로 신혼부부학교를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성애 박사님 강의를 듣다니! 배움을 통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실천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레파부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변화와 동물들의 지혜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생태적 슬픔 Eco Grief

올해 여름도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지중해성 기후인 그리스와 터키는 섭씨 45도가 넘는 폭염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산불에 시달렸다. 미국 서부지역도 최고기온이 섭씨 57도를 기록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미친 폭우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영구동토층인 시베리아는 30도가 넘는 고온으로 여름마다 눈지로 변하고, 북극과 남극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얼음도 빠르게 녹아내린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그야말로 지구가 불타고 있다. 산업화 이전보다 겨우 1.2도 높아졌을 뿐인데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1.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1.5도가 바로 코앞이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은 분수대도 열심히 하고, 에어컨을 자제하고, 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토록 가파른 기온상승을 되돌릴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상실감, 냉담한 회의주의자들에게 대한 분노까지 겹쳐져 지금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심정은 저마다 고통스럽고 복잡하다. 그런 슬픔의 한 가운데에 바로 툰베리가 있다.

에코페미니스트인 애슐리 쿤솔로(Ashlee Cunsolo)와 카렌 랜드맨(karen Landman)은 이런 슬픔을 '생태적 슬픔(Eco Grief)'이라고 부른다. 북극곰이 자기들끼리 잡아먹거나 떠난 양상한 사진을 볼 때, 돌고래들이 축제용 놀잇감으로 집단 학살되는 장면을 볼 때,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쓴 물새들의 꺾뻗거리는 눈을 마주할 때, 그물에 걸리거나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운 바다거북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라져가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미세먼지로 몽게구름도 사라지고, 폭염으로 빙하도 사라져간다. 우리를 둘러싼 익숙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본의 광기 때문에 속절없이 멸종을 향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까? 인간이 지혜롭다지만 실제로 진정 지혜로운 사피엔스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사례를 보며 기후변화를 멈출 지혜를 배워보자.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박혜영 교수는
에코페미니스트이자 영문학자로
시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저서로 「느낌의 0도」,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공저),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공저)
등이 있다.

아랫목을 내주는 황제펭귄

남극의 추위는 극단적이다.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을 에는 혹한이 매섭게 몰아친다. 그러면 남극의 황제펭귄은 알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 원을 만들어 눈 폭풍과 추위를 견뎌낸다. 서로 뭉쳐있으면 등이 드러나는 바깥쪽은 영하 50도라도 새끼들이 모여 있는 원의 안쪽은 0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의 맨 바깥쪽에 서 있는 펭귄들의 경우 얼마나 등이 시릴까? 이들은 무리를 위해 희생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펭귄들은 가만히 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움직인다. 이것을 허들링(huddling)이라고 부르는데, 바깥쪽의 펭귄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며 서로 교대하는 것이다. 만약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쪽 펭귄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금수저



다” 이러면서 말이다. 그럼 당연히 바깥쪽 펭귄은 얼어 죽게 되고, 점차 안쪽의 펭귄과 새끼들도 모두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서로가 아랫목, 윗목을 양보하며 교대해줌으로써 황제펭귄은 아무도 안 죽고 살아남게 된다. 인간보다 더 지혜롭지 않은가?

여름이면 해마다 맹렬한 폭염이 계속된다. 뜨거운 축사에서, 비좁은 닭장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열기에 고통스러웠을 가축들을 생각한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점점 사막화되는 땅에서 살 곳을 잃고 멸종을 향해 내몰리는 수도 없는 야생동물들을 생각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슬프게도 너무 늦을 것이다. 툰베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른들이 희망을 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른들이 제가 매일 느끼는 공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어른들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른들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로 손잡고 자는 해달



해달은 손을 매우 잘 쓰는 동물이다. 해달이 몸을 뒤집은 상태에서 배 위에 조개나 전복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부딪혀 깨서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개만이 아니다.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안고 있기도 한다. 해달은 하루 종일 물 위에 뜬 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신기하게도 잠을 잘 때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잔다. 해초류로 몸을 감아두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 손을 잡고 자기도 한다. 주로 새끼들 손을 잡지만 다 큰 어른들끼리도 두 손을 꼭 잡고 잔다. 그 이유는 자는 동안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에 뜬 채 잠을 자는 해달은 자는 동안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저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잔다. 야생 상태에서는 둘만 손잡고 자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자는 동안 혹시라도 친구가 떠내려갈까 늘 주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끼리의 우정보다 낫지 않은가?



성경 속 성폭력

여성과 남성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말하기

(사사기 19:30)

필자는 대학에서 상담이론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전문가, 그중에서도 여성과 아동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주로 다루는 상담가이고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다. 답답한 팬데믹 현황과 더불어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성폭력 관련 일화들에 마음이 무겁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일상뿐 아니라 성경에 매우 많은 이야기가 있다. 숨겨져 있거나 다른 이야기의 본격적 시작 전 살짝 나오긴 하지만, 성폭력을 경험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복된 소식(good news)이 있다면 찾아보려고 한다. 그 소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요즘 막장 드라마 정도는 가볍게 뺄 때리는(?)이야기들을 뒤져야 한다.

이름 없는 레위인의 아내

잠시 성경 속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떠올려보자. 가장 먼저 기억나는 여성의 이름을 대보라면 아마 다말과 레위인의 아내(첩-첫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복오빠와 남편이니, 이 경우에는 가족 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레위인은, 가출한 아내를 달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 닳새를 머물고 결국 아내와 함께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 이유에 대한 아내의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돌아오는 중, 베냐민 사람의 땅인 기브아에 이르러 한 노인의 집

에서 밤을 맞게 되고 동네남자들의 협박 속에서 선뜻 자기부인을 내 준 그 남자의 태도는 아내를 달래 돌아온 남편이 맞나 싶다. 분명 남자들은 레위인 남자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자기 처녀 딸을 내준다는 노인이나 자기 부인을 내보낸 레위인이나 이 남자들을 욕하려면 나의 이야기는 끝을 맺지 못할 듯 싶다.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적이다.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인의 몸은 남편에 의해 열두 토막이 되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조각조각으로 넘겨지게 된다. 이 처참한 일에 대한 반응에 대해 사사기 19:3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얼마나 성숙한 말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의논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의 결과 또 다른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깊은 사고와 행동의 주체가 오직 남성들일 때, 의논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이 배제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아닐까. 남자들만의 회의 결과는 곧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쟁으로 정당화된다. 사사기 20-21장을 보면 이름 없는 여인에게 벌어진 폭력적 사건보다는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을 훨씬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시신 훼손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 뒷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부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이름 없는 레위인의 아내, 이 여인은 분명한 성폭력의 희생자이고 피해자다.



김희선
상담전문가·목사
명지대 상담복지학과 객원교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의 정체성

피해자(victim)는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용어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먼저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 레위인의 아내는 죽음을 맞았기에 비극적인 피해자이지만 현실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의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 외 또 다른 정체성을 뜻하는 용어는 ‘생존자’이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란 성폭력 피해와 그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한(survive) 사람, 즉 살아남은 자를 뜻한다.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존자’라는 용어는, 피해자로 하여금 ‘삶을 좌지우지하는 치명적인’ 성폭력 경험에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가는 삶을 강조한다. 성폭력 경험 이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조카에게 이름을 물려 준 다말

성경 속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성의 입장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피해자였는지 아

『암논과 다말』 안 허비스 스텐, 1661-1670.
오크 패넬에 유채, 83×67cm, 발라프 리하르트 미술관



니면 그 경험을 딛고 일상을 회복해가는 생존자가 되었는지까지 알기는 어렵다. 이복오빠인 암논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이야기 역시 다말이 그 후 오빠 암살림의 집에서 ‘쓸쓸히’ 지냈다는 표현으로 피해자 다말의 이야기로 마무리 되는 듯 보이지만, 여성신학자들은 사무엘하 14장에 암살림이 딸의 이름을 자신의 누이 이름을 따 ‘다말’이라고 지었다는 구절을 눈여겨본다. 성폭력 상담전문가로서 성경과 성폭력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서 시간을 두고 수강생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해보게 한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첫 침묵을 깨는 용감한(!) 의견을 따라 풍부하고 입체적인 상상력이 성경 속 피해자 다말을 채색한다. 다말이 피해자였다면 암살림이 그 비극적이고 재수 없는(?)이름을 자기 딸에게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에서 시작해서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 다말이 매우 침착하게 암논을 설득하며 방법을 찾았고 저항했으며 이후 옷을 찢고 울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과 ‘가족 간의 일을 밖으로 알리지 말라’며 침묵을 중용하거나 이 일에 대해 함구한 아버지 다윗과 오빠 암살림의 전형적인 2차 가해 사실을 새롭게 떠올리기도 한다.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 속 다말은 자신의 조카에게 이름을 물려준 좀 더 주체적인 생존자로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성폭력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 숨겨져 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일상에 등장하는 성폭력 이야기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말해야 할 이유이다. 오래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나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아내와 다말은 우리 곁에 있다. ♪

미국 최초 여성 인상주의 화가 메리 카사트



메리 카사트 Mary Cassatt
1844. 5. 22 - 1926. 6. 14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 본문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여성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메리 카사트는 인상주의로 출발했지만 세상에 그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시킨 것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담긴 '어머니와 자녀'라는 주제의 그림들이다. 평생 독신이었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카사트가 여성, 그것도 어머니라는 역할에 주목한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다.

19세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화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기도 했지만 품위 있는 여성이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곳 또한 제한적이었다. 카페나 바, 클럽, 심지어 매춘 굴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남성 화가들과 달리 거리에서의 활동은 제한적이었기에 가정과, 때때로 방문했던 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가 그의 관심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독학으로 전통 양식의 그림 공부

메리 카사트는 184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레게니 시티(현재의 피츠버그)에서 주식 투자 중개업을 하는 아버지와 부유한 금융가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매우 풍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유년을 보냈다. 그의 부모는 여행을 교육의 필수로 여겼기에 카사트의 가족은 5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유럽 곳곳을 여행했고, 그는 이때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가 화가가 되겠다고 하자 가족들, 그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여성은 가사, 자수, 교양에 필요한 그림 그리기와 음악 정도만 배우면 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사트는 15세에 화가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펜실베이니아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그의 부모는 그가 페미니즘과 남학생들의 방탕한 생활에 노출될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카사트를 실망시킨 것은 학교의 교육방식과 교직원, 남학생들의 건방진 태도였다. 결국 자퇴를 한 카사트는 1866년 파리로 이사해 미술공부를 시작한다. 에콜 드 보자르에서는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카사트는 몇몇 화가로부터 개인교습을 받기도 했지만 주로 루브르박물관에서 모사 허가증을 받아 대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독학으로 전통 양식의 그림 공부를 했고 파리 살롱전에도 지속적으로 출품했다.

인상파 영향 속 독자적 화풍 추구

카사트가 인상파 화가 그룹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에드가 드가 덕분이다. 1874년 드가는 살롱전에 출품된 카사트의 그림을 보고 높게 평가했고, 카사트 또한 같은 해에 화랑 창문을 통해 본 드가의 작품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후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드가는 카사트를 인상파 화가들의 그룹에 소개했다. 여기에는 이미 유일한 여성으로 베르뜨 모리조가 있었고 카사트는 유일한 미국인이었다. 드가는 파스텔을 활용한 기법에 능통했으며 판화 예칭에도 뛰어났기에 카사트에게 예칭 기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드가의 영향으로 카사트 그림은 인상파 스타일로 크게 변모했다.

그는 1886년 미국에서 첫 인상파 전시를 했으며, 그 후 그의 스타일은 더 발전하여 인상파 화풍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형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어느 미술사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화풍을 가지게 된다.

육아를 성스러움에 비유

1888년부터는 모성애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1893년작 「어린이의 목욕」이라는 작품을 통해 그의 화풍을 이해할 수 있다. 카펫이 깔려있고 뒤에 소파가 있는 거실에서 줄무늬 평상복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가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발을 씻기고 있다. 살짝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어머니의 옷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묘사했으며, 밝고 다양한 색채는 인상파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만 인상파 화가들에 비해 인체의 형태를 더 분명하고 단단하게 구조적으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루브르박물관에서의 모사 연습과 인상파의 결합이 이루어낸 카사트만의 방식으로 여겨진다.

가사노동에서 탈출하여 해방하고 싶어 하던 당시 페미니스트들로부터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카사트는 육아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일상 속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그런 그의 생각은 그림 형식에서



「어린이의 목욕」 캔버스에 오일, 100.3x66.1cm, 1893.
Art Institute of Chicago

드러나는데, 라파엘로의 성모상처럼 아이를 왼손으로 안고 무릎에 앉힌 삼각형 구도를 통해 육아를 성스러움에 비유했다고 할 수 있다.

카사트에게 1890년대는 가장 바쁘고 창의성이 넘치던 시기로 어린 미국 화가들의 멘토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미국의 미술품수집가들의 조언자로서도 활약하여 그들의 수집품들을 미술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애썼다. 카사트는 1910년 이집트 여행을 통해 고대 이집트 미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예술 그 자체의 힘에 짓눌렸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창조성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1911년에 당뇨와 백내장, 루머티스 등 진단을 받은 후 1914년부터는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하여 실명 상태로 있다가 1926년 파리 근교에서 숨졌다. 그의 유해는 프랑스에 있던 가족 납골묘에 안치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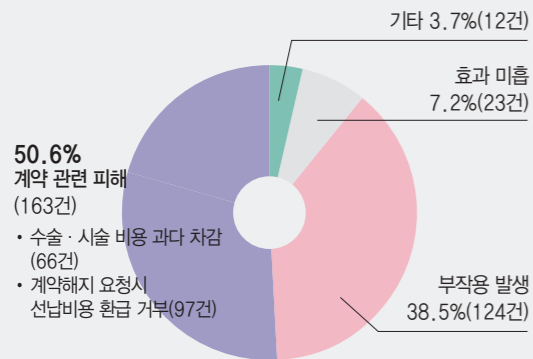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자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환급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2019-2020
(한국소비자원)



사례1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못 받게 되어 환급을 요구하니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어요

Y씨는 한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10회에 걸쳐 턱수염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하고 150만원을 결제했다. 결제 후 시술을 3회 밖에 받지 못했고 유학이라는 개인사정으로 앞으로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나머지 7회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환급 불가' 방침을 밝혔다.

Y 상담 tip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치료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치료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10% 배상 후 차액 환급, 치료 개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씨 경우에는 3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45만원과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공제한 금 90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측은 상관없다고 묵묵부답이네요

W씨는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쌍꺼풀 라인이 너무 커져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다. 의사가 다른 설명 없이 쌍꺼풀 라인을 예쁘게 다시 만들어준다는 말만 믿고 재수술을 받았는데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현상)이 되어 안구건조증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Y 상담 tip 일반적으로 토안 자체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 각막염 등 증상이 발생된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수술 전 특히,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단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만 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시술 전보다 시술 후 더 심해진 색소침착, 배상을 거절당했어요

A씨는 얼굴 피부 개선과 잡티 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색소침착이 발생했다. 시술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되었고 색소침착을 위한 추가 시술을 받은 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Y 상담 tip 레이저 시술의 경우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이저 시술 직후 물집이 생겼고, 이후 물집이 치유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레이저 조사 등의 시술 상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정리_ 김보민 소비자환경팀 간사

의료서비스 문제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

- ☑ **치료 경과, 문제 발생 관련 사진 자료 보관**

사진 자료는 치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후(일자별 경과 등) 사진을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대비

※ 현행 의료법상, 사진 자료는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보관의무 없음
- ☑ **담당의사와 상담 시 내용을 정확히 기록**

상대방 동의하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도 추후 증거로 활용
- ☑ **내용증명 작성으로 근거 확보**

 - 내용증명이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
 - ※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 다운 후 작성 가능
 - 내용증명서 작성 후 3부를 복사해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 또는 인터넷(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
- ☑ **피해 구제, 법률적인 도움 요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해 도움 및 피해구제 신청
 - 법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2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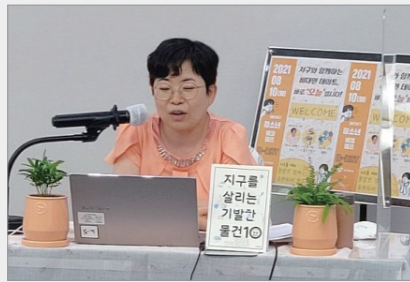
청소년 에코캠프

서울Y는 8월 10일 서도비엔아이(주)와 함께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청소년 에코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마주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에코-인플루언서'가 되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첫 시간은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의 박경화 작가와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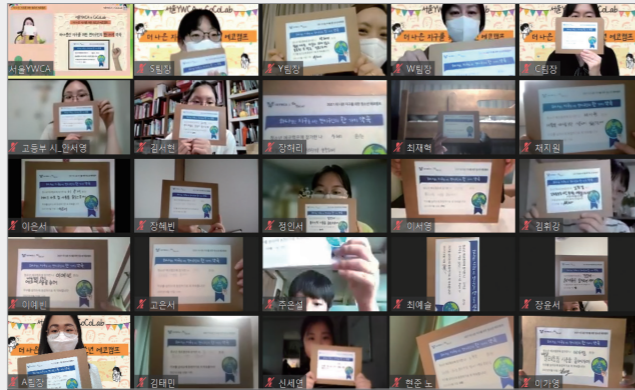
<고릴라는 핸드폰을 싫어해>,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등 여러 환경 도서를 집필한 박경화 작가는 금속젓가락, 태양전지, 종이, 패시브하우스 등 기발한 물건 10가지를 소개하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작은 실천의 시작"을 강조했다. 황선미 서울Y 환경강사·활동가의 강의도 이어졌다.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을 청소년들과 나눴다.

이 외에도 '숨은 쓰레기 찾기', '지구를 위한 한 가지 약속 적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보았다. 캠프에 참가한 약 50명의 청소년 모두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용기를 가져가 음식 포장해 오기 등의 약속을 적으며 진정한 에코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들은 '플로깅' SNS 인증 미션에도 도전했다. 쓰레기를 주으며 조깅을 하는 플로깅을 통해 한 발 더 지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청소년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후위기시대에서 지역 사회를 이끄는 그린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디오 성경 제작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영성 회복을 위해 '회원과 함께 하는 오디오 성경 - 잠언'을 제작했다. 선착순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남녀노소 1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저마다의 목소리로 잠언을 기록했다. 완성된 오디오 성경은 Y, W, C, A 총 4편에 걸쳐 서울Y 유튜브와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봉천

아동·청소년 방학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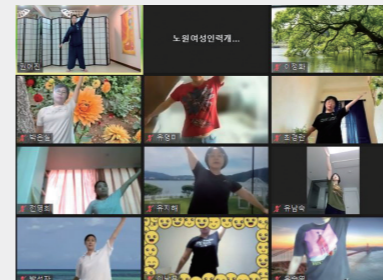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방학프로그램 '여름아! 방학을 부탁해'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여가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32명과 함께했다. 요리, 전통놀이, 수영, 성우 체험을 비롯해 세계리더 양성 교육, 자아탐색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또래와의 교류로 사회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노원

뇌건강레크리에이션지도사 과정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5일 뇌건강레크리에이션지도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16명 참여하고 있는 본 과정은 여성미래유망전략 직종으로 개발, 운영되는 과정으로 9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뇌건강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 후에는 실버산업 등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



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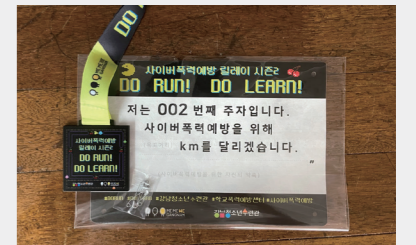
사이버폭력 예방 릴레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7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릴레이 시즌2 'DO RUN! DO LEARN!'을 전개했다. 지난해 진행된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러닝 주자 메달을 지급해 청소년의 참여를 격려했다.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약속과 함께 릴레이 번호를 배에 달고 언택트 마라톤에 참여하며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한편 건강한 신체를 단련했다.

영등포

청소년을 위한 커피바리스타 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코레일유통 후원으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커피바리스타2급 자격 취득 대비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론, 실기 교육은 물론 코레일유통에서 운영하는 카페 트리핀에서의 실습 기회를 통해 바리스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격 취득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누리봄

창작동화집 출판기념전시회

누리봄은 누리봄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담은 창작동화집 「무지개를 따라온 엘리스」 출판기념전시회를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마일게이트 사옥 로비에서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부 공개 없이 진행됐다. 이번 도서는 예술치유연구소 '엘리스와토끼'와 온라인게임 개발기업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지원으로 발간됐다.



*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상황 극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준비하며
중보기도회를 매월 온라인으로 연다.

	9월	10월
• 일시	9월 16일(목) 19:00	10월 21일(목) 19:00
• 주관	평생체육위원회	여성능력개발위원회
• 문의	02-3705-6032	02-3705-6042

서울YWCA 큰장날

해마다 찾아오는 서울Y 큰장날이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작은 규모로 열립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10월 21일(목) 11:00-15:00
- 장소 서울Y 회관 4층
- 문의 02-3705-6005

* 안전상 먹거리 코너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교육

서울Y는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교육을 온라인 줌으로 연다.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서울Y 환경강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다.

- 교육대상 제로웨이스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교육일시 8월 18일-9월 15일(매주 수) 14:00-15:00
- 신청방법 서울Y 홈페이지 활동보기 게시판
신청링크 작성
- 문의 02-3705-6064

강남 현충시설 탐방 '新(신)과 舊(구)의 연결'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청소년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일시 9-10월 1·3주 토요일 10:00-16:00
- 장소 서울시내 현충시설(도산공원, 안창호기념관, 용산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등)
- 내용 현충시설 탐방 · 헌화, 현충시설 주변 정화 (봉사활동시간 2시간 지급)
- 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 문의 02-3442-5167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노원 신규 프로그램

과정	일정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9월 6일-11월 25일 (월-금) 9:30-13:30
시학습데이터 어노테이터 양성(2기)	10월 5일-11월 3일 (월-금) 9:30-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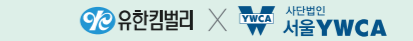
- 교육대상 미취업 여성
- 교육비 10만원(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 · 창업시 5만원 추가환급)
- 교육신청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접수
- 문의 02-951-0187

영등포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

미취업 여성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훈련생을 선발한다.
교육 후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기간	9월 18일-11월 17일(월-금) 14:00-18:00 *직종설명회 8월 18일(수) 14:00
교육내용	각 보험회사별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의 전산입력 프로그램 실습 등

- 신청방법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후 센터 방문
(사진 · 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교육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 문의 02-858-4514



2021 생명사랑 신혼부부 학교



레파숍에서 부부 행복 찾기
메타버스 가상 숲에서 펼쳐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소통 축제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실천편이
메타버스 가상 레파숍 공간에서 펼쳐진다.
총 100쌍의 레파부부들을 레파숍에 초대하여
부부소통 강연, 숲속 작은 음악회,
다양한 체험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일시 9월 11일(토) 11:00-17:30
- 참가대상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100커플
- 참가보증금 커플당 5만원(참가 후 환급)
- 내용 숲속 작은 음악회
(뮤지션 해리안 & 윤소안)
명사 초청 강연회
(장동선 뇌과학박사)
- 문의 02-3705-6018

CALENDAR

2021 **9**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1 · 제로 웨이트 교육 (8일, 15일) 14:00	2 · 청소년 금융교육 19:30	3 · Access 영어교육(한꿈학교, 매주 월·금) 9:30 · Y-틴 C.A (경기여고, 17일) 14:10	4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대학생 사회봉사 O.T 11:00 · 피스톡톡 정기모임(18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18일)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18일) 15:00
6 · Y-틴 C.A (정신여고, 13일) 15:10	7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정책분과 13:00	8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 Y-틴 C.A(이화여고, 29일) 14:20	9	10 · Y-틴 C.A (중암중) 13:40	11 ·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실천편 11:00 · 대학·청년YWCA협의회 11:00 · 울력 정기모임 11:00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25일) 14:00
13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4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모금분과 13:00	15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길 위의 평화포럼 14:00 · Y-틴 C.A (명지교) 14:30	16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17 위원회 강남Y 11:00 홍보출판팀 11:00	18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5:00
20 · 누리봄 흙커밍데이 (~22일) 13:00	21 추석	22	23 위원회 영등포Y 11:00	24	25
27 위원회 봉천Y 11:00 평생체육팀 18:00	28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인사 11:00 청소년팀 11:00 임원 12:00	29	30		

CALENDAR

2021 **10**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1 · Access 영어교육 (한꿈학교, 매주 월·금) 9:30 · Y-틴 C.A(중암중, 8일·29일) 13:40 ·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길 위의 평화포럼 14:00 · 홀로 걷는 평화순례 (~10일)	2 · 피스톡톡 정기모임 (16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 (16일, 30일)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16일, 30일) 15:00	
4 대체 휴일	5 위원회 재정부 11:00 · 창립 100년준비 비전·정책분과 13:00	6	7	8	9 한글날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10:00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11 대체 휴일	12 이사회 10:00 · 창립 100년준비 회원·모금분과 13:00	13	14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청년YWCA협의회 11:00 · 카다리학교 정기모임 (30일) 14: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5:00
18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 Y-틴 C.A (정신여고, 25일) 15:10	19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Y-틴 C.A (명지교) 14:30	21 창립 100년 준비 중보기도회 19:00 큰장날 11: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22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 Y-틴 C.A (경기여고) 14:10	2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11:00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 Y-틴 C.A(이화여고) 14:20	28	29	30 · 울력 정기모임 11:00

2021 회원증모 명단

서울YWCA
새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365명
20단체

기간 5월17일(월) - 7월23일(금)
접수 6,806점(목표 7,000점의 97.2%)
회비 198,225,000원(목표 210,000,000원의 94.3%)

단체상 1등 재정부 620점
2등 청소년팀 578점
3등 시설운영사업팀 377점

특별상 재정부 청소년팀 시설운영사업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참여팀 강남청소년수련관
국제협력팀 누리봄 홍보출판팀 소비자환경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체육팀

일반

강미영 강민정 강선경 강선자 강시은 강영애 강원경 강유미
강정희 계숙화 계정란 고은화 광영숙 구국강 권미선 권남부
권순복 권순정 권영주 권은정 권하영 길정희 김강래 김경숙
김경아 김경애 김경영 김경훈 김광미 김길옥 김나래 김내영
김명순 김명순 김무경 김문원 김미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민경 김민지 김복란 김복주 김복희 김부순 김상은 김선미
김선숙 김선애 김성숙 김성순 김성일 김성혜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옥 김순자 김아람 김안수
김여운 김연순 김연주 김연주 김영란 김영란 김영미 김영미
김영순 김영옥 김오영 김옥섭 김옥자 김은주 김용희 김원선
김유진 김윤소 김은숙 김은순 김은아 김은태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인숙 김인숙 김인하 김임수 김 정 김 정 김정숙
김정순 김정원 김정자 김정자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준희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정민 김초자 김학자 김현희 김형분
김혜경 김혜민 김혜선 김혜숙 김혜숙 김혜순 김홍숙 김화경
김화숙 김화순 김화정 김효순 김희선 김희연 남혜승 노성자
노연희 류철순 류현정 맹지혜 명정옥 목경자 문영미 문영순
문영자 문정숙 문혜경 민서현 민준희 박경희 박기순 박남영
박미라 박미경 박서윤 박선영 박선옥 박선호 박수현 박순덕
박솔기 박솔기 박아영 박영숙 박영순 박영자 박은희 박일지
박정애 박정애 박종미 박종욱 박주영 박준경 박지영 박지원
박진실 박진희 박춘자 박춘화 박현애 박혜숙 박혜연 박혜영
박희순 박희연 박희원 박희현 방영선 방혜련 배경자 배영숙
배희순 백명숙 백선옥 백소현 백소현 백소현 백지은 박찬주
변현조 변혜경 서락원 서소라 서정숙 서향라 서혜원 서희숙
석달수 선호정 성기화 성민숙 성순경 성혜옥 손금연 손예원

손옥연 손지연 송기순 송선민 송순자 송오엽 송원근 송지은
신남선 신동미 신동원 신미용 신민정 신성희 신영희 신재원
심미경 심선희 심정자 심혜영 안미정 안미정 안선영 안지선
안지현 안진선 안창락 양미진 양영만 양정자 엄용재 엄원숙
염병윤 염은주 염 정 오미영 오숙영 오은수 오은혜 오정선
오조묘 오진영 오희영 우경아 우승현 원영경 유경숙 유경희
유미노 유미라 유미옥 유민지 유병숙 유성수 유수영 유숙상
유순자 유아자 유예주 유윤주 유혜민 유희열 유희정 육명선
육우정 육경임 윤기선 윤동춘 윤상희 윤선화 윤성숙 윤수진
윤순옥 윤순희 윤애경 윤 영 윤영호 윤우경 윤정은 윤정희
윤지원 윤혜경 윤혜정 이경원 이경화 이계순 이금녀 이금주
이금주 이금향 이기현 이다미 이래완 이매우 이명옥 이명희
이명희 이미로 이미숙 이미애 이미자 이민정 이봉희 이선애
이선형 이세미 이세진 이소애 이수연 이숙미 이숙자 이숙자
이숙자 이순호 이슬기 이승준 이승진 이시경 이시전 이애경
이어진 이영금 이영숙 이영순 이영희 이예은 이옥희 이원순
이의녕 이의상 이인순 이임곤 이재아 이재옥 이재희 이정란
이정림 이정미 이정순 이정연 이종순 이주자 이주현 이주희
이주희 이준석 이지숙 이지연 이지는 이창숙 이추성 이춘옥
이충환 이하강 이현숙 이현영 이해란 이해선 이해숙 이해순
이혜옥 이혜옥 이혜진 이화란 이화정 이화진 이희경 이희두
인영숙 임계월 임다애 임동숙 임상호 임선영 임예진 임지영
임진남 임태용 임혜준 장연순 장영랑 장영례 장영원 장영자
장은숙 장현경 장현아 장 훈 전길자 전미덕 전보연 전정석
정광철 정기은 정문옥 정미경 정보경 정선혜 정옥재 정용희
정인정 정제범 정지은 정진영 정태원 정태희 정하은 정혜영
정희진 정희영 제경자 제금자 조경희 조귀선 조근업 조남향

조미경 조미진 조민자 조선미 조성현 조아영 조영관 조영란
조영선 조오영 조우형 조은희 조인엽 조정현 조현빈 주리애
주미경 주지운 주진숙 지성후 지인실 지정화 진경선 진은정
차승민 차정미 차정민 천귀매 최경옥 최기자 최대백 최승미
최영란 최영선 최영태 최은정 최은경 최정현 최정희 최지영
최지원 최지현 최혜영 최홍규 최희경 최희연 하성은 하현숙
한명성 한모남 한상조 한선호 한영순 한영희 한은영 한정숙
한지연 한지연 한지영 한혜경 허미란 허미숙 허승남 허유인
허 은 허정은 홍경란 홍서윤 홍선미 홍승연 홍은자 홍인숙
홍희정 황금숙 황미례 황소영 황영숙 황현숙 황화원

강현주 강휘원 경민희 고서현 고승아 고예슬 고우미 고은울
고지민 구명준 구서윤 구슬기 구현희 권수영 권용범 권현수
김가연 김가은 김가희 김경민 김경아 김경희 김규담 김규민
김나영 김나윤 김나현 김나현 김다인 김단영 김대영 김도연
김도연 김도현 김도현 김동현 김루아 김민서 김민선 김민승
김민정 김민주 김민진 김보민 김선아 김성혁 김세연 김소연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수진 김수한 김수현 김시연
김신영 김아베스 김연우 김예강 김예원 김예은 김예은 김예은
김오성 김유경 김유림 김유민 김윤아 김재은 김정연 김주안
김준형 김태희 김한슬 김현이 김현주 김현주 김혜원 김태윤
김태희 김희은 김희주 김희주 김희주 남연우 남유림 노희경
류지수 류지수 목서빈 문수현 민세영 민세영 박미림 박서연
박서준 박서진 박서진 박서환 박솔희 박시연 박시연 박예은
박원진 박윤하 박은수 박인선 박정은 박종우 박주연 박지원
박진원 박재정 박하영 박현진 박혜인 박혜주 박혜주 박희진
배세은 배수인 배운서 배운지 백지수 백지수 서민주 서지윤
서한준 서희영 선다은 성유빈 손서연 손아영 송연재 송채연
송채연 송형록 송해린 신승재 신연수 신예원 신유나 신윤진
신정연 신정현 신희원 심수정 심윤영 심재영 심재인 심혜원
안가은 안민경 안성안 안소미 안소현 안승은 안여진 안현준
안현진 양서진 양주은 양채림 양혜은 오수인 오승빈 오윤정
오준석 오현아 오현진 우채원 유은서 유지혜 윤동규 윤동욱
윤민교 윤서경 윤수경 윤수정 윤지선 윤지후 윤하경 윤희진
이다나 이다혜 이도엽 이도현 이동준 이동화 이미나 이미나
이민진 이민혜 이민혜 이서진 이선우 이소민 이소은 이소정
이수진 이수현 이 슬 이슬기 이승주 이승호 이시민 이시현
이예린 이예린 이예빈 이예은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서
이윤서 이자희 이정미 이정석 이정석 이주석 이주현 이준혁
이지안 이지안 이지윤 이진서 이채원 이초위 이태경 이해인
이혜민 이혜안 이혜인 임서현 임세인 임세희 임주현 임하늘
임홍빈 장여진 장여진 장연우 장원준 장주연 장준혁 전예은
전유안 전윤수 전지현 전하은 전효림 정건희 정다민 정다형
정민지 정서연 정서원 정소은 정수안 정수안 정수진 정승원
정승은 정아람 정연서 정유나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윤서
정윤아 정종우 정채린 정한나 제유림 조선유 조아진 조연정
조예은 조예은 조윤나 조윤서 조윤성 조하진 주예나 주이안
주이엘 지서림 차수연 채유리 천세연 최건준 최명지 최선아
최세은 최승윤 최유나 최유리바다 최은정 최정원 최한결
탁현지 하현민 한애정 한예건 한주은 한지연 한채원 현민아
홍서연 홍서연 홍서영 홍유정 홍의정 홍의정 황원표 황윤성

유지

김윤경 김인석 김주리 박미애 수원사회 양경희 양금희 양미다수
이경재 이재성 정용국 차경숙 차경웅

평생

강인혜 김다진 김성애 김명자 배정인 안은영 이길연 이옥식
이재강 이주연 이지민 이지선 임재원 조예성 주효진 최정임
최혜실 한가원 현영금

대학생

강누리 강영지 강민정 강보훈 강진환 강한솔 강해솔 고하은
권규희 김가현 김규림 김나연 김나현 김도윤 김민우 김민지
김민태 김범준 김상민 김성민 김세연 김세연 김수림 김수림
김시원 김영훈 김예빈 김예하 김유리 김유림 김유정 김유진
김준동 김준우 김지우 김지윤 김태연 김태영 김형동 김혜연
김혜진 김호준 김희경 남인선 문가흔 문호경 민동주 민소정
민지윤 박영호 박유미 박지윤 박채원 배윤정 배운주 백종한
변재성 서효경 송가는 송미형 송예지 송재준 심혜원 안시은
양서희 양승연 엄홍경 엄홍광 오승은 오주은 유헌환 윤민강
윤성희 윤유희 윤정연 윤한나 이가는 이강욱 이광민 이광진
이다인 이민서 이민진 이배정 이상은 이서윤 이승학 이수빈
이아영 이연송 이유경 이윤성 이인찬 이 정 이종우 이채린
이재호 이체림 이하은 임우상 임태경 임희선 장용희 장재원
전하민 정시원 정예원 정 인 정준석 정 초 조다은 조서영
조화연 진서영 진선윤 최형원 하선호 하준호 하지원 한호중
황성원

Y-틴

강나연 강태원 강민규 강지우 강지윤 강태경 강하민 강해솔

어린이

강다연 강태양 김가영 김동욱 김서윤 김서윤 김세령 김세현
김승현 김아은 김예건 김유안 김은울 김정우 김지선 김효영
민세영 박선규 박승규 박시은 박유진 박주은 박주혜 박채은

박혜수 백찬은 송은별 송은율 신승후 심하선 심하영 오수빈
유나연 유하연 윤시아 윤시우 이수진 이시우 이정우 이태양
임정민 전서우 정영우 정윤호 정현준 조우빈 조우신 진유진
진유진 최은성 최지은 하가윤 하 린 하유라

월 후원

(주)시공디자인	(주)제이티	(주)체험왕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로사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보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창우 강춘호 강종모	강하자 강형식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미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미 고은정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흥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연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기상 권기용	권내연 권범찬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형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옥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일 김경화 김관옥 김관재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욱 김기홍 김기환 김나영 김나은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지 김민희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한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정
김소희 김수연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수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연정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식 뷁띠통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혜 김예지 한이수 김옥민 김용갑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익동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정국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리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우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화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중용 김중운 김중원 김중진 김중희 김지나 김주환	김준경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배 김창섭 김채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해경 김해성 김해정 김해미 김현경 김현경	김형수 김형태 김해경 김해성 김해정 김해미 김현경 김현경

김형순 김형태 김해경 김해성 김해정 김해진 김호정 김호진	김홍우 김홍준 김화숙 김화자 김화진 김호숙 김호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승우 남윤경 남은희	남희숙 노남례 노수연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아라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동성	민영자 민선기 민수현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순
박영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소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서희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종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영 박소자 박소현	박소현 박솔희 박솔예 박솔주 박소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솔
박은별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연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현 박주희	박준성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경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해리 박해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반미복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재호 배정미 배정숙 김정기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이명원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산드라운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분이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옥희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시옥 성연석 성윤수 성은숙 성익경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소영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병우 송상경 송선희 송성인 송세실
송영채 송예나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주원 송창울 송창은 송태연 송하윤 송혜승 송혜현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하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서현	신승우 신승은 신승주 신연식 신영순 신용자 신우람 신우진	신재은 신지숙 한성기획 신청희 신충섭 신현미 신현수 심경호
심다영 심영란 심재원 심정자 안병세 안병수 안성원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우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영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세진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주희 양진영
양행욱 양경문 양경미 양경옥 양경원 양동신 양명숙 양미행	정미희 정민선 김민정 정삼미 정선희 정소희 정소희 오영아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김기욱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근묵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남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빈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경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종희 조진영 조진희 조춘순 조하은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아름 윤여신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 혁 윤현진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자 이금재	이금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든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 이명중 이명혜	이명호 이미숙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석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석초 이선덕	이선미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소영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자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진 이승진 이승철 이승현 이승현
이승혜 김인선 이시현 이시형 이선현 이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옥경 이옥숙 이옥식	이용호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B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경	이재림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재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좌녕 이주연 이주형 백향덕 이종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준 이창희 이재진	이천희 이춘옥 이춘원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미 이현미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인지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인 임등자 임명희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소영 임연수	임완철 임우택 임재영 임정자 임정진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준현 임지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해미 장혜숙 장혜영 장화정	장휘진 전덕기 전민구 전봉숙 전상숙 전소영 전영경 전영삼	전영화 전우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한솔	전행욱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김민정 정삼미 정선희 정소희 정소희 오영아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김기욱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근묵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남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빈 조성진 조성호 조세환	조시원 조연경 조연신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종희 조진영 조진희 조춘순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중앙이앤씨 지경표 지 영	지영찬 지 인 지홍배 진영선 차경희 차성호 차의철 차지혜	차학주 채송화 채송화 채은주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초혜민	최광기 최기은 최두훈 최명민 최명희 최문희 최민호 최 불	최봉수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경B 최순근 최순연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정 최윤주 최윤희 최은주 최인숙	최재국 최정희 최준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금례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아소 한애성 한영경 한인선 한재희 한정희	한정원 한지현 한지희 한현식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함희순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 우 허지영 허지용 허철영	허혜정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성희 홍수연 홍유진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회우

강구태 강석민 고대연 김지호 김태원 김형철 박성재 박종두	박주원 박찬욱 박희균 배명식 백범엽 백진희 변승민 서동욱	서준교 서충석 신세호 신원철 심요한 안성준 유체찬 윤의진	이건우 이동형 이 립 이상훈 이성현 이순재 이종철 임 현	장경익 장도진 장순범 조대신 최대성 최 운 한춘식 홍성현
---------------------------------	---------------------------------	---------------------------------	---------------------------------	---------------------------------

기업 · 단체

(주)대열보일러 (주)더세븐파트너스 (주)디엠라인 (주)선한
(주)한배엔지니어링 H.I.몬트를 굿데이서비스 동성에프에스
유한회사 라라라아트센터 삼우상회 서진TPS 수원스퀘어AK수원점
쉴더샵 심마팍 주식회사 엠마스크린 에이스스퀘어경기광주
월드유니텍 위즈에듀케이션 현대공조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일시 후원

김지숙 여현주 이명혜 전용옥 정계순 정하경

※ 명단에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705-6008



2021년 서울YWCA 도너월 명단

서울Y는 후원해 주신 귀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도너월에 새겨 그 뜻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

개인후원

Y-Honors Club

강순숙 이연배 조종남 차귀숙 차타리아

Y-Partner Club

김진란 김 형 박병숙 이유림 이주영 이행자
정광모 최복진

Y-Friend Club

고선혜 권도웅 김명희 김상순 김선자 김선희
김숙자 김진숙 민홍숙 박영숙 박위자 박정희
배은경 송현정 양선희 염현경 이옥희 이정희
이홍자 장영옥 전용옥 전현숙 정영숙 조연신
한혜영 황성연 황정자

• 2021년 업그레이드
김재신

Y-Club

김덕신 김미자 김정순 나순복 남혜옥 노인성
문종숙 민병옥 송순옥 염영섭 윤혜선 이경연
이숙현 이원희 이정호 이종미 이혜양 이화자
임혜원 전영지 전인영 정은숙 조성환 지복임
최수경 하정화 홍근표

• 2021년 신규
김영자 원영희 이복희 이지선 최한나

* 개인후원 기준(누적금액)

Y-Honors Club 1억원 이상 Y-Partner Club 5천만원 이상
Y-Friend Club 1천만원 이상 Y-Club 5백만원 이상

기업후원

유한킴벌리	포스코
하나금융나눔재단	네이버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주)월드패션
성주재단	스타벅스
CJ제일제당	KT&G
아이캡외국환중개	패션그룹형지
서암학술재단	나이키
따뜻한나무장학회	아모레퍼시픽
한국야쿠르트	(주)한수
하나금융투자	효성ITX
유한그린텍	현대상선(주)
홈&쇼핑	교보생명
(주)한사	(주)셀트리온

• 2021년 신규
김진덕 정경식 재단

단체후원

가사돌보미협의회	국제협력위원회
선교부위원회	솔잎회
여성능력개발위원회	점역회
청소년팀위원회	Y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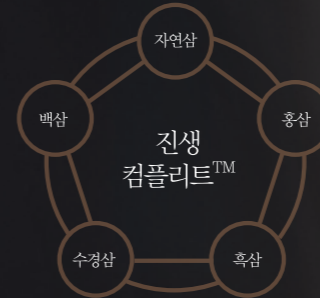
2021년 6월까지 누적후원금액 기준

수려한

단 한 병에 담긴 다섯 가지 인삼
더 강력하게
더 진하게 스며들다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5가지 인삼, 진생 콤플리트™



자라는 환경, 가공 방법, 성분, 효능이 모두 다른
다섯 가지 인삼 성분에 진생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구성으로 완성한 진생 에센스^{AD}의 핵심 성분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회원 소식

김현숙 소비자환경팀 간사
4월 27일(화) 딸 문민하 출산

김소담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8월 14일(토) 낮 12시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전북 전주)에서 결혼

김보민 소비자환경팀 간사
8월 27일(금)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주관
2021 제16회 KCOP인 대회에서 Junior부문 수상

평생회원



김영자
아기돌보미협의회
증경회장



배정인



안은영



이길연 감사
법률사무소 호크마
대표변호사



최혜실



한가원



현명금 이사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부위원장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acare.com
- 문의 02-3705-6071



99년의 긴 세월 동안 서울Y는 수많은 회원·시민과 함께
생명살림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역사적 기록을 담은 여러분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서울Y와 함께한 사진이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사진 예) 캠페인, 프로그램, 걷기대회, 특별행사 등 행사 참여 사진
서울Y 회관, 서울Y 기념품(텀블러·장바구니 등)과 함께한 사진 등

공모 기간	9월 26일(일)까지	결과 발표	10월 22일(금) 예정
참가 방법	사진에 기든 사연과 함께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송 ynews@seoulywca.or.kr • 1인당 사진 5점 이내 제출 가능 • 성함과 연락처 기재 필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상 내역	1 등 (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2 등 (2명) 문화상품권 7만원 3 등 (3명) 문화상품권 5만원 입선 (4명) 문화상품권 3만원
심사 기준	공모주제와의 적합성, 충실성, 상징성, 작품성	문의	02-3705-6043

*참가자 전원에게 서울Y 굿즈를 드립니다
*참가작은 홈페이지와 SNS, 회보를 통해 소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2021년 7월

특별 후원



일시후원

장학금 이주영

정기후원

박미란 윤정자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1년 회보 '하나님의 정원' 칼럼 연재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1년 회보 '예술과 여성' 칼럼 연재

• 나명균

회보 7·8월 칼럼 '기독교신앙과 여성', '예술과 여성'

오디오 클립 녹음 지원

핑크박스 후원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위호정(최유진)

이윤선 이재림 임지영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복지사업단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변옥균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양진화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윤혜선 이관우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정현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불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복멘토링 후원



강로사 구영숙 김나은 김난희 김민아 김민지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민혜경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여현주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전은금 정나미 최동수 최 불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한혜영
도서후원 정모아 Hannah Lee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김정순 송순옥 월요까페 이홍자 임은유 정수경 조종남

후원 계좌

농협 386-01-020282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름을 위한 레티놀라운 진화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



IOPE



AP몰이나 가까운 아리따움 매장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정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과꽃 *Aster*

국화과 한해살이풀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 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동요 [과꽃]의 노랫말(어효선 작사)처럼
예쁜 소녀의 얼굴이 연상되는 이 꽃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동남부 지역의
자생식물이예요.

본래는 홑꽃인데 18세기 프랑스 선교사가
유럽으로 가져가서 다양한 빛깔의 겹꽃으로
개량한 원예종이 전 세계로 퍼졌지요.

국화 집안 가을꽃답게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피는데, 중국에서는 당국唐菊이라 하고
푸른색 꽃 빛깔에서 유래한 취국翠菊,
백남국碧藍菊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글 이경순 명예위원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구인 가사돌보미·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녀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 888-7983